

‘대형신인 → 음원강자까지’...봄이 오면 가요계도 복적



신인부터 솔로, 그룹까지 각각 색의 아티스트들이 봄을 맞아 격전을 펼친다. 치열했던 1,2월 컴백 라인업 만큼이나 3월 가요계도 분주할 전망이다. 대형 신인부터 솔로 아티스트 음원강자까지 다채로운 가수들이 출격을 대기 중이다. 3월 컴백 포문은 대형 신인이 연다. 단연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신인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다. 방탄소년단 이후 아홉살에 내놓는 이들은 이미 티저만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3월 4일 데뷔 앨범 ‘꿈의 장: START’를 발매하고 이날 Mnet 특집 ‘데뷔 셀러브레이션 쇼’를 통해 전격 데뷔한다. 이례적인 과격대우다.

GOT7(갯세븐)의 두 번째 유닛 Jus2(저스투)도 3월 5일 베일을 벗는다. 진영-JB로 이뤄진 JJ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에는 JB와 유겸이 뭉쳤다. 두 사람은 그룹의 메인 보컬과 메인 댄서, 팬들의 눈과 귀를 모두 충족시킬만한 환상적인 조합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니앨범 ‘FOCUS’ 발매 후 해외 쇼케이스 투어에도 나설 예정이다.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홍진영은 자신의 첫 정규앨범을 발표한다. 타이틀은 ‘오늘 밤에’다. 최근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도 마치는 등 컴백 준비에 한창이다. ‘오늘 밤에’는 디스코 펑키와 트로트가 어우러진 레트로풍 트로트. ‘사랑의 배터리’의 조영수 작곡가와 다시 기투합했다. 3월 8일 공개된다.

‘말고 듣는 에픽하이의 신보’도 발매된다. 지난 2017년 9집 ‘WE’VE DONE SOMETHING WONDERFUL’

TXT · Jus2 · 홍진영 · 에픽하이 등 격전 예고

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에픽하이는 지난해에는 세카이노오리와 작업한 컬래버레이션 음원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1년 여만에 본인들의 앨범을 내놓게 됐다. 3월 11일 공개되는 이번 신보는 ‘잠 못 드는 밤’을 주제로 다양한 곡들을 채웠다. ‘sleep in _____’이라는 독특한 앨범명도 관심을 끈다.

3월 컴백을 목표로 준비 중인 아티스트도 많다.

워너원 출신 박지훈이 대표적이다. 박지훈은 오는 23일 체코 프라하로 출국 뮤직비디오 촬영에 나서는 등 3월 신보 발매를 위해 준비 중이다.

워너원 활동 종료 후 가장 의욕적이고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박지훈이기에 이번 솔로 음반 또한 관심을 끌 전망이다.

2NE1 출신 박봄도 솔로로 돌아온다. 긴 공백기를 가졌던 박봄은 용감한 형제, 산다라박의 지원 사격 속에 자신의 솔로곡을 발표할 예정이다. 용감한 형제가 ‘역대급’이라

자신할 정도로 완성도 높은 곡이 탄생했다는 후문이다.

봄이 되면 ‘벚꽃엔딩’으로 이른바 ‘벚꽃엔딩’의 주인공이 되는 장범준도 벚꽃피는 계절에 돌아온다. 군복무에 나섰던 그는 전역 이후 음악 작업에만 매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별이 빛나는 밤’, ‘너나해’가 연거푸 사랑받은 마마무도 3월 컴백을 앞두고 있다. 앞서 화사의 첫 솔로 ‘명칭이(twi)’이 음원차트에서 오랜시간 1위를 수성하며 사랑받고 있는 가운데, ‘밀맘마’로 불리는 마마무의 컴백은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신인상만 8개를 거머쥔 스트레이 키즈도 3월 컴백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최근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컴백 준비에 나섰다. 해외 쇼케이스 투어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무서운 신에 스트레이 키즈가 이번 활동으로 확실한 대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도 기대를 모은다.

이외에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블랙핑크의 3월 신곡 발매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어, 3월 컴백 대진은 더욱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젊은 층 잡은 SBS 드라마, 지상파 2049 시청률 1위



SBS 드라마가 젊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2049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현재 SBS에서는 월화극 ‘헤치’(극본 김이영·연출 이용석), 수목극 ‘황후의 품격’(극본 김순옥·연출 주동민), 새롭게 신설된 금토극 ‘열혈사제’(극본 박재범·연출 이명우)가 방송 중이다. 공교롭게도 이 작품들은 모두 광고관계자들의 주요 판단지표인 2049시청률에서 타사를 압도하면서 승승장구 중인 것.

우선 지난해 11월 21일 첫 방송된 ‘황후의 품격’은 48회가 방송되는 동안 닐슨코리아 기준(이하동일) 최고시청률 20%에 육박한 것을 비

롯해 2049시청률에서는 초반 1%대에서 시작, 21일 종영을 앞둔 현재 7%대까지 치솟았다. 이는 동시간대 MBC ‘불이 오나 불이 1%대, 그리고 KBS2 ‘왜 그래 종상 씨’가 2~3%대, tvN ‘진심이 닿다’가 기록한 2%대보다도 높은 수치로,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과 종편의 수목극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드라마는 뮤지컬배우인 오세니(장나라)가 황제 이혁(신성록)과 결혼, 황후가 된 뒤 부패한 황실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토리를 담았다. 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 김순옥 작가 특유의 필력과 ‘리턴’ 주동민 감독의 탄탄한 연출력과 만나면서 최근에는 드라마 화제성면에서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마지막을 앞두고 긴장감 극강의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시청률 또한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2월 11일 첫방송된 ‘헤치’는 시작과 함께 최고시청률 11%에 육박했으며, 2049시청률의 경우 2회에 단숨에 3.6%를 기록했다. 덕분에 동시간대 MBC ‘아이템’의 2%대,

KBS2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이 기록한 1%대를 제치고 지상파 월화극 왕좌에 오를 수 있었던 것.

드라마는 연인군 이국(정일우)이 과거 준비생 박문수(권율), 사헌부 열혈 다모 여지(고아리), 저자거리 알패 달문(박훈 번)과 함께 대권을 쟁취하는 흥미진진한 과정을 담았다. ‘이산’ ‘동이’ ‘바의’의 김이영

작가와 ‘일지매’ ‘마을 아치아리의 비밀’의 이용석 감독의 시너지가 점점 더해지면서 시청층을 더욱 끌어모을 재미를 마쳤다.

그런가 하면, 지난 15일 첫방송된 SBS 첫 금토극 ‘열혈사제’는 최고시청률 18.3% 뿐만 아니라 2회에는 2049시청률 5.6%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지상파와 케이블, 그리고 종편에서 동시간대 1위 자리를 쟁취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16일의 경우 4회가 5.4%를 기록, 이날 마지막 방송으로 4.3%에 머문 MBC ‘친과의

약속’도 이기면서 향후 전망을 더욱 밝게 했다.

드라마는 다혈질 가톨릭 사제 김해일(김남길)과 구담경찰서의 형사 구대영(김성균), 검사 박경신(이하늬)이 신부 이영준(정동환 분)의 살인사건으로 인해 엮이면서 스토리를 펼쳐간다. 드라마 ‘굿닥터’ 김과장’의 박재범 작가, ‘원치 ‘뽕속 말’의 이명우 감독은 이제까지 본격적인 새로운 장르를 만들면서 눈길을 사로잡았고, 더불어 금토극의 새로운 최강자임을 단숨에 입증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최근 SBS드라마가 전체 시청층 뿐만 아니라 젊은 시청자들의 트렌드를 철저히 분석한 덕분에 이처럼 2049시청률 면에서는 1등을 차지할 수 있었다”며 “이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더욱 다양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소재가 돋보일 SBS 드라마에 많은 기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헤치’와 ‘황후의 품격’, ‘열혈사제’는 각각 월화와 수목, 금토요일 밤 10시에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경영부터 박근형” ‘자전차왕 엄복동’, 민고보는 명품 라인업 완성



일제강점기, 조선인 최초로 ‘전조선자전거대회’에서 승리를 거두며 압도했던 조선에 희망이 되었던 실존 인물 엄복동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3.1운동의 100주년인 2019년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의 이름만 들어도 신뢰도를 높이는 명품 조연 라인업이 공개되어 화제다.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은 일제강점기 희망을 잃은 시대에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조선인 최초로 전조선자전거대회 1위를 차지하며 동아시아 전역을 제패한 ‘엄복동’의 업적을 소재로 당시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독립군들의 활약을 픽션으로 재구성한 작품. 정지훈, 강소라, 김희원, 고창석, 이시연, 민호진 그리고 이범수까지 민고 보는 배우들의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자전차왕 엄복동’이 충무로를 대표하는 명품 조연 라인업을 공개, 민고 보는 영화로 관객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먼저, ‘한국영화는 이경영이 나

오는 영화와 나오지 않는 영화로 나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영화의 기동 같은 배우로 자리매김한 이경영은 2019년, ‘자전차왕 엄복동’으로 관객들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경영은 물장수 복동보다는 공부 잘하는 물재 귀둥을 아끼는 듯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장남 복둥을 향한 부성애를 가지고 있는 엄복동의 아버지 역을 맡았다. 그는 충무로 최고의 신스틸러답게 앞에서는 무뎠지만 뒤에서는 그 누구보다 자신들을 사랑하는 거부장적 아버지의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일본 총독 하세가와 역으로는 배우 박근형, 고종 역에는 송재호가 출연, 명품 배우의 연기 내공을 유감없이 선보인다. 특히 자전차 경주 대회 결과에 따라 희비가 있

갈리는 두 배우의 표정 연기는 경기를 보는 재미를 더해 예정이다. 여기에 김형진(강소라 분)과의 추격전, 맨손 격투신으로 맹활약을 펼치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사장 최제원 역에는 이원종이 출연, 신스틸러로 존재감을 뽐낸다.

이 외에도 자전차 상인의 김일우, 시장 산발 가게 사장 역의 이한위 등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맹활약 중인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 관객들에게 신뢰감을 더해줄 예정이다.

3.1운동의 기본 정신인 ‘민중의 자력’을 담은 의미 있는 영화로 2019년 최고의 화제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 주연 못지않은 존재감과 연기력으로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준 조호와 캐스팅으로 관객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있는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은 오는 27일 개봉한다.

오늘의 순세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음력 1월 16일)

- ▶**쥐** 가족 간에 신병수 아니면 직업을 변동하려는 운이 있을 듯. 2, 4, 10, 11월생 방향에서 벗어나야겠다. 기술, 연구, 공직자는 가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 자아도취에서 깨어 일어나라. 뛰어난 능지 않았다. 미혼자는 늦은 시간 외출은 삼갈 것.
- ▶**돼지** 출세하고 소원을 성취하려면 높은 것만 바라보지 말 것. 부족한 것을 택할 때 후일 만족이 더욱 클 것 같다. 금융, 화학, 의료, 금속업계 그, ○, ㅎ 성씨는 주머니 부기가 크겠으니 귀가 시간 늦지 않도록 서두름이 좋겠다.
- ▶**호랑이** 3, 4, 8, 10, 12월생 하는 일 이상 없고 부부 간에도 이상 없다. 그럼에도 내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를 타내고 있는 격. ㄴ, ㄱ, ㅈ 성씨는 하나만 알지 말고 다음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할 때다. 풍선이 계속 커지는 재미로 불दान 터져 버린다.
- ▶**토끼** 한 가지 일에 골몰하다가 우울증이나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다. 5, 6, 7월생은 잡은 고기 놓쳐 놓고 안타까워하는 격. 지난 것은 빨리 단념하라. 친할수록 지킬 것은 꼭 지켜야 할 때다. 서, 남간에 있는 자에게 마음의 문 열려라.
- ▶**물고기** 바, ㅈ, ㅎ 성씨는 도움 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으나 쥐, 뱀의 뜻과 행동을 무시하다가 날벼락 맞을까 염려된다. 1, 3, 9월생 예술, 예술, 의료, 창작, 기술직 종사자는 아랫사람이나 동년배의 시비를 조심할 것.
- ▶**말** 내 것이 아니면서 내 것처럼 하다가 꼬리를 감추는 격. 4, 5, 7월생 뱀, 뱀, 닭기가 염려하고 있다. 진실을 털어놓고 원위자로 돌아감이 좋겠다. 증권, 화공, 세탁업은 변동수와 이사가 있을 수 있으나 서두르는 말 것. 노란색이 길.
- ▶**닭**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림의 떡. 그것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으니 돈주머니를 꼭 닫아. 그, 바, ○ 성씨는 언행 함부로 하지 마라. 말 한마디로 모든 것 그릴 수 있다. 그동안의 굶던 정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 ▶**개** 상대를 타하기 전에 자신의 단점을 고쳐 붙이 어떨까. 그, ㄱ, ㅈ, ㅎ 성씨는 실속 없이 심심만 피곤하다. 잇을 건 잇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 1, 8, 10월생 애정문제가 다소 복잡하게 엮여가니 애간장 타겠다.
- ▶**원숭이**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면에서 시달림이 올 수 있다. 자존심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유대관계를 원만히 하라. 잘못하다 내 것까지 빼앗기며 뒷북 맞는 격.
- ▶**물소** 힘겨운 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처리하지만 좋은 소리 들리지 않는구나. 남의 일 함부로 참견하지 마라. 내 탓이 아닌데 내 탓이라. ㅅ, ○, ㅈ 성씨는 뱀, 돼지따로부터 원망 들겠다. 7, 8, 9월생은 노란색을 삼가라. 자신이 나약해짐을 알 것.
- ▶**개** 남에게는 알차 보이지만 속은 빈 껍질뿐이구나. 현재는 인내가 필요. 무한한 힘과 성장이 숨겨져 있으니 하고 있는 일 계속 노력하라. 1, 6, 8, 10월생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그 모양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 것.
- ▶**돼지** 힘에 겨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나. 2, 7, 11월생 여성은 몸과 마음 의지할 곳 없는 상태라고 자책할 못하다 속아 넘어갈 수. 타인의 효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 것. 그, ○, ㄱ, ㅎ 성씨는 불가능이란 없으니 용기백배하여 자신을 얻을 것.